

편의점·대형할인마트 일본산 제품이 판친다

생활용품서 명품까지 매장 '야금야금'

일본산 제품이 광주·전남 대형 할인마트와 편의점 등을 빠르게 점령하고 있다. 엔화까지 하락이 지속되면서 일본산 제품의 국내 판매가 격이 하락한데다 마니아(mania)층이 생겼을 정도로 20~30대 젊은층들의 선호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14일 현재 100엔은 790.9원으로 지난해 말 841.97원보다 51.07원 떨어졌다.

이 같은 엔저 현상이 계속되면서 할인점 업계는 라면·치약·머리핀·초콜릿·블렌·접시 등 식료품에서 생활용품까지 일제 상품의 비중을 크게 늘리고 있다. 그만큼 수익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엔화 가치 하락에 마니아층 생겨 유통업체 발빠른 '장삿속'도 한 몫

대형할인점인 '홈플러스'는 최근 도자기·접시·그릇 등 일본 제품 40종을 판매하는 수입품 전문 코너를 마련했다. 이들 제품 가격은 2천원대로, 같은 종류의 국내 접시보다 30~40% 가량 저렴하고 품질마저 우수해 주부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신세계 이마트'는 일본산 진열장·서랍·리딩박스 등 10여 종을 판매하고 있으며, 앞서 지난 3월과 4월에는 휴지통·세제통 등 일본 제품 500여 종을 놓고 저가 판매 행사를 펼치기도 했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취급 품목 대다수가 저가품인 일반 생활용품이나 식료품인데, 국내산과 가격 경쟁도 되고 품질도 우수해 소비자들 많이 찾고 있다"며 "올 여름 추세를 지켜 본 뒤 가을 상품 확대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처럼 명품에서 1천원짜리 초저가 생활용품까지, 국내 유통업체들이 앞다퉈 판매하는 것을 두고 일부 소비자들은 굵직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대학생 강모(26)씨는 "요즘 편의점에 가면 일본산 제품 일색"이라

며 "'독도문제' '역사교과서' 등의 문제가 불거질 때면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벌이는 상황에서 엔화까지 하락이라는 핑계로 일본산 제품 수입을 늘리는 유통업체의 '장삿속'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 무역협회에 따르면 일본 제품이 인기를 누리면서 올 상반기 일본산 생활용품 수입액은 2억2천135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현재 광주·전남지역 편의점은 594곳으로 지난해 536곳에 비해 10.8%인 58곳이 증가했다.



광주 시내 모 할인점의 수입산 주방용품 코너. 엔저현상이 계속되면서 일본산 제품의 국내 판매가격이 하락, 유통업체 매장에 일본 상품이 영역을 넓히고 있다.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5일 돈을 받고 이용사 실기 시험을 통과시켜 준 한국이용사협회 광주지회 간부 3명을 배임수재와 갈취 혐의로 불검아 조사 중이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돈을 주고 실기 시험을 본 김모(40)씨 등 23명에 대해서도 배임증제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3년

돈 받고 이용사 실기시험 통과시켜 광주 이용사협 간부 3명 검거·조사

부러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최하는 이용사 국가 기술자격시험에 자신들이 실기 감독관으로 배정되자 김씨 등 수험생 23명으로부터 100~200만

원을 받고 합격시켜주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3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또 자신들을 통해 자격증을 딴 수험생 대부분이 광주지역에서 이

탈수를 개입하자, 협회 가입비·명절떡값 등의 명목으로 3억7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매 시험마다 2명씩 돌아가면서 실기 감독을 맡아 돈을 건넨 수험생들에게 높은 점수를 위합력을 도운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이들이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공모했는지 여부를 캐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

호우에 애타는 농심 고추 말리려다 화재

화순·해남 피해 잇따라

광주·전남지역에 호우가 계속되면서 고추 수확기를 맞은 농가에서 패 아닌 아궁이 화재가 잇따르고 있다.

14일 오후 7시50분경 화순군 춘양면 변천리 김모(64)씨의 주택에서 아궁이 화재가 발생해 주택 50㎡가 전소돼 소방서 추산 900여만원의 피해를 내고 진화됐다.

김씨는 이날 오후 7시50분경 아궁이 화재가 발생해 주택 50㎡가 전소돼 소방서 추산 900여만원의 피해를 내고 진화됐다.

김씨는 이날 오후 7시50분경 아궁이 화재가 발생해 주택 50㎡가 전소돼 소방서 추산 900여만원의 피해를 내고 진화됐다.

에 고추를 깔아놓고 아궁이에 불을 넣어 말리던 중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새벽 1시43분경에는 담양군 대전면 서옥리 청용 마을 박모(76)씨의 집에서 고추 건조를 위해 아궁이에 불을 지피다가 옆에 있던 빨간색 불이 옮겨 붙어 농가 9㎡와 가재도구 등이 타 4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농가에서 오랜 기간 아궁이를 사용하지 않아 쥐들이 방바닥을 갠아먹어 갑자기 아궁이를 사용할 경우 화재 위험이 크다"며 "처음 불을 피울때 연기의 흐름을 살펴 열기가 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장시간 불을 피워 지나치게 방바닥이 가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무등산 불법 건축 광주시, 7명 고발

광주시는 무등산에서 허가 없이 건물을 증축해 음식점이나 주택, 창고 등으로 사용한 건물주 임모(60)씨 등 7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임씨는 무등산에 불법 건축물 117㎡를 무단 증축해 음식점으로 사용하면서 무등산공원관리소가 불법건축물을 철거하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이행하지 않아 고발됐다.

시 관계자는 "불법 건축 등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4개조의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다"며 "자연공원에서 적발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정기자 jnews@

"통장 함부로 만들어 주지 마세요"

주부·고교생 등 '대포 통장' 표적

사회 물정에 어두운 주부와 고교생들이 최근 전화사기 조직들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

주부 이모(27)씨는 지난 3월 초 남편(38)의 부탁을 받고 서울 시 용산구 모 시중은행에서 자신의 명의통장과 현금카드·인터넷 뱅킹 카드를 만들어 남편의 지인이라고 자칭하는 40대 남자에게 건네줬다. 하지만, 이씨가 만들어 준 통장은 며칠 뒤 의료보험금 환급 사기에 사용됐다. L모(47·광주시 북부)씨가 전화사기에 속아

270만원을 이씨의 통장에 입금한 것이다.

이로 인해 이씨는 15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광주 북부경찰에 붙잡혔다. 조사결과 이씨의 남편은 PC방 게임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사기 조직에 개당 5만원을 받고 통장을 개설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김모(17)군 등 고교생 3명도 이씨와 같은 혐의로 경찰에 최근 붙잡혔다. 김군 등은 지난달 경남 지역 모 PC방에서 우연히 알게 된 20대로 추정되는 남자의 합박에 은행통장 등을 개설해줬고 이 통장은 전화사기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행기자 golee@

장흥 장애도 앞 바다서 70대 물놀이 하다 익사

15일 오후 1시25분경 장흥군 안양면 사촌리 장애도 앞 바다에서 마을 노인들과 함께 야유회를 왔던 오모(70·장흥군 건산리)씨가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것을 일행이 발견, 구조했으나 숨졌다.

해경은 오씨가 술을 마신 뒤 혼자 물놀이를 했었다는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부부싸움 주부 음독 사망

지난 14일 오전 11시40분경 광주시 동구 학동 전남대병원에서 극약을 마신 후 치료를 받던 주부 윤모(37·광주시 광산구 신가동)씨가 숨졌다.

윤씨는 지난 11일 저녁 8시경 신안군 D해수욕장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남편 강모(38)씨의 승용차 안에서 부부싸움을 한 뒤 음독, 3일 동안 치료를 받아왔다. 경찰은 술친 윤씨와 함께 극약을 구입한 남편 강씨를 대상으로 자살방조 여부를 조사 중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북한 주민에 무료로 자장면 배달"

○집중호우로 수백 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북한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로 자장면을 나눠 주겠다고 서울 강동구 중국음식점 업주들이 방북을 신청.

○서울 강동구 종식업연합회(회장 양영근) 회원들은 북한 수해돕기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 16일 통일부에 방북 허가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발표.

○이들은 방북 허가를 받으면 20~30명 규모로 봉사단을 꾸려 장비를 실은 화물차 1대와 버스 1대 등 차량 2대를 이용해 방북한 뒤 3~4일가량 수해지역에 머물며 5천여명 분량의 자장면을 만들어 북한 주민들에게 나눠줄 생각.

○2000년에도 이들은 북한에 밀가루 1천 포대를 보냈으며, 2004년 북한 용천역 폭발사고 때는 북한에 직접 들어가 봉사활동을 하려다 방북 허가가 나지 않아 포기하기도.

/연합뉴스

마술 (Magic) 무료 수강생 모집

마술은 상상력을 자극하고, 창의력을 높여주는 활동입니다. 마술을 배우면 친구들과 놀 때, 파티 때, 공연 때 등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술은 누구나 배울 수 있고, 재미있고 흥미로운 활동입니다.

수강생 모집 대상

- 1. 마술을 배우고 싶은 분
- 2. 친구들과 놀 때, 파티 때, 공연 때 등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분
- 3. 마술을 배우고 싶은 분
- 4. 마술을 배우고 싶은 분
- 5. 마술을 배우고 싶은 분

문의처: 마술마스터 김민준 010-526-2500

도로교통사고감정사

비밀리에 접수된 사고를 신속하게 조사하여 보상금 지급을 도와드립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무등고시와 협력하면 합격이 쉬워집니다.

합격률 높이기 위한 무료 공개 강좌

- 합격률 높이기 위한 무료 공개 강좌
- 합격률 높이기 위한 무료 공개 강좌
- 합격률 높이기 위한 무료 공개 강좌

합격률 높이기 위한 무료 공개 강좌

- 합격률 높이기 위한 무료 공개 강좌
- 합격률 높이기 위한 무료 공개 강좌
- 합격률 높이기 위한 무료 공개 강좌

무등고시학원

모디쉬갤러리 夏 특가판매

모디쉬갤러리에서 여름 특가판매를 실시합니다. 다양한 디자인의 가구와 소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매하십시오.

모디쉬갤러리 夏 특가판매

모디쉬갤러리에서 여름 특가판매를 실시합니다. 다양한 디자인의 가구와 소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매하십시오.